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12. 2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獨, 네오나치 수사 위해 연방경찰·정보요원 총원 예정

- 12.17 독일 내무부는 지난 10월 유대교 회당 총기테러 사건*을 계기로 네오나치주의자들의 인종차별 테러 대응을 강화중인 가운데, 네오나치와 극우세력의 테러 예방·수사를 위해 연방경찰 300명과 국내 정보요원 300명 모집계획을 발표

* 10.9 동부 할레市에서 네오나치 추종자의 유대교 회당 총격테러로 2명 사망·2명 부상

○ 터키, 「알 바그다디」측근 포함 ISIS 조직원 19명 등 체포

- 12.18 현지언론은 군경 대테러작전을 통해 남부 오스만니예州에서 ISIS 수괴 「알 바그다디」(10.26 사망)의 측근과 추종자 등 19명을 검거했으며, 별도로 신년맞이 행사장 테러를 모의하던 관련조직 연계 혐의자 13명도 추가 체포했다고 보도

미 주

○ 美, ISIS 합류 위해 밀항 시도한 미국인 남성 체포

- 12.22 ABC는 코네티컷州 웨스트 해븐 거주 「아마드 칼리 엘샤즐리」(남, 22세)가 시리아 ISIS에 합류하기 위해 컨테이너 수송 선박을 타고 터키로 밀항을 시도, 12.15 스톤링턴 해안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보도

* 同人은 약 1년간 주변과 온라인에서 ISIS를 대신해 싸울 것이라고 말해 왔으며, 유튜브 채널에 고성능 무기 사용방법 영상 게재

○ 美, 서아프리카에서 미군 감축·철군 검토

- NYT는 美 국방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의 첫 단계로 서부 아프리카 주둔 병력*의 감축 또는 철군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, 이는 9·11 테러 이후 강화해온 대테러 임무를 줄이고 러·중 등 경쟁국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도

* 사하라 사막 남쪽을 비롯 에티오피아·지부티·소말리아 등에 총 6~7천명 주둔

중 동

○ ISIS, 이라크 함린산맥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

- 12.23 BBC는 ISIS가 최근 이라크에서 조직을 재건하는 징후가 포착되었으며, 특히 지형이 넓어 軍의 통제가 어렵고 은신처와 동굴이 많은 함린산맥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도

*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대테러업무를 총괄하는 「탈라바니」는 ISIS가 전술과 자금 측면에서 알카에다를 앞서고 있으며, 이미 재건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

아 · 태평양

○ 말레이 총리, 무슬림 혐오 확산에 자성 촉구

- 12.19 말레이 총리는 쿠알라룸푸르 정상회의*에서 “우리가‘지하드’(聖戰)라고 말하는 행위 때문에 쏠 세계적으로 이슬람 혐의주의가 확산되고 있다”며 이슬람 주요국 정상들에게 자성 촉구

*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2.18~21간 56개 이슬람국가 정상 및 이슬람 지도자 등을 자국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초청하여 회의를 개최

○ 탈레반, 평화협상 중단 후 美軍차량 폭탄공격

- 12.23 NYT는 탈레반이 아프간 북부 쿤드즈州에서 IED로 미군 차량을 공격해 미군 1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부상당했다며, 이번 공격이 평화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

* '19.9.7 자살폭탄테러(미군 1명 포함 사망 12) 후 중단된 평화협상이 '19.12.7 재개되었으나, '19.12.11 탈레반의 아프간 바그람 美공군기지 인근 테러(사망 2·부상 70)로 再중단

‘리비아 외교부 청사’ 자폭·총기테러

- '18.12.25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(Tripoli)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서 자살폭탄·총기테러가 발생, 외교부 국장 등 3명 사망·21명 부상
- 경찰당국은 테러범 3명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타고 외교부 청사에 돌진하여 총기를 난사하였으며, 2명은 건물 안에서 자폭하고 1명은 경비원과 총격 과정에서 사살되었다고 발표
 - 리비아 외교부는 “리비아 국민은 쏠 세계를 대신해 테러에 맞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”는 성명을 발표하며 테러 공격을 강력히 비난
- 사건 직후, ISIS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의 배후를 자처
 - * 리비아는 '11년 독재자 「무아마르 알 카다피」 축출 후, 정부가 2개로 나뉘어지고 혼란한 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ISIS에 의한 테러도 지속적으로 발생

테러 상식

< 쉥겐 정보시스템(SIS, Schengen Information System) >

- (목표)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죄·테러로부터 유럽지역의 안전 보장
- (기능) 유럽 30개국이 범죄·테러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을 위해 각 개별국가의 범죄·테러 용의자, 실종자, 위험인물 및 감시대상자, 분실·도난 무기류, 위조·분실 신분증, 위험인물의 생체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
- (가입국)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, 키프러스를 제외한 26개국과 아이슬란드, 스위스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 등 EU 미가입 4개국을 합한 총 30개국
 - * 2001.3.25 15개국이 국경통제를 완화하면서 안보 목적으로 설립
- (현황) SIS는 2011.11월 공유정보 확대 등 1차 시스템 개선, 2013.4월 입력·수정 정보의 실시간 반영 등 2차 시스템 개선, 2021년 목표로 새로운 SIS package가 진행되고 있으며, '17년말 기준 약 7,650만 건 이상의 관련 정보가 축적되어 상호 공유 中